

소주를 뭘로 만들었기에

마실 때 미소 마신 후 미소



좋은 쌀을 골라 2년간 숙성시킨 쌀 증류원액을
일부 첨가하여 마시기 좋고 뒤끝없는 미소주—
첫 맛에 반하고, 뒷 맛에 반해 마실 때 미소짓게 합니다.
뒤끝까지 깨끗해 다음날 아침에도 미소짓게 합니다.

마실 때 미소, 마신 후 미소
미소주

연세대학교 제2회 여성제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공간은 상상력을 만들고, 상상력은 해방구를 만든다!

99년 10월 4일(월)~8일(금)



주 최 : 문대 여성모임 '모반' · 여성학 생활도서관 ·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WOM' · 여성주의모임 '13번째'
주 관 : 제2회 여성제 기획단



Ms. Medi Hospital

2000. 1.

OPEN

New Millennium 여성전문종합병원

산부인과/소아과/내과/외과/비뇨기과/마취과/임상병리과/방사선과

강서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제일미즈메디
강서병원이
2000년 1월에
개원합니다.



제일미즈메디 강서병원
☎ 664-3300

영동제일병원이
제일미즈메디
강남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일미즈메디 강남병원
☎ 3467-3800

제일미즈메디병원
Ms. Medi Hospital



노성일 원장(의대 77)

연세대학교 제2회 여성제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공간은 상상력을 만들고, 상상력은 해방구를 만든다!

99년 10월 4일(월)~8일(금)



주최: 문대 여성모임 '모반' · 여성학 생활도서관 ·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WOM' · 여성주의모임 '13번째'
주관: 제2회 여성제 기획단

행사 일정

시간	일자	4일 (월)	5일 (화)	6일 (수)	7일 (목)	8일 (금)
낮 12시 1시		개막제 (학관 앞)	만물박스/구조물/만화거리전 (민주광장)			
			퍼포먼스			
저녁 6시 7시		아외 영화제 I • '기친' • 단편영화 "있다"... "Welcome" (백주년기념관)	아외 영화제 II • PERFECT BULE • 제인캠피온의 단편영화 (백주년 기념관)	인터넷 강좌 (웅재관 2층 교과대 PC실)	폐막축제 Feminian Night (백주년 기념관)	

여성제 행사 진행요원 모집

99年(년) 2學期(학기),
平生(평생) 最初(최초)이자 最後(최후)가 될
千年(천년)의 末尾(말미)에서
'延世(연세)의 魔女(마녀)들과 함께' 新(신) 千年(천년)
정화 의식 한번 벌려보지 않을까?

지원 자격

몸 속 어딘가 숨어있는 '끼'를 찾거나 찾은 사람

함께 하면 좋은 점

엄청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자리! (Level up)
식사, 뒷풀이 100% 보장

모집 분야

• 영화제 5명 • 퍼포먼스 4명 • 사이버공간 이용전략(강연) 1명
• 도서전 3명 • 공연 및 폐막 문화제 10명 + α

연락은 어디로?

감김정임(독지): 019-567-9982

누구와 함께 하지?

연세대학교의 여성자치단체들과 함께

목 차

여성 제

행사 일정

기획 글

연세를 여성의 시선으로 뒤집어보자!

제2외 여성제 '女友아女友아, 어디있니?' 둘러보기

아외 영화제 / 여성있는 공간, 여성없는 공간

강연회 / 여성을 위한 인터넷 강좌

폐막축제 Feminian Night '문달고 나가'

매일마다 민주광장에서는...

여우아 여우아, 어디있니?

기숙사가는 길 / 무학학사 女友들의 대화

대강당 / 길을 만드는 일

화장실 / 열어 젓혀라!

나우누리 연세동 익명 게시판 /

익명 게시판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사적공간 · 공적공간 /

만원의 분노와 오십만원의 태연자약 사이의 거리 혹은 분노와

무력함 사이의 거리 기성회비 통합 고지서 사기사건에 대한 단상

자기만의 방

방, 전화, 단짝친구, 그리고 나의 이야기 / 독립을 위하여,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한숨을 쉰다. 하지만 이 한숨은 '불순한' 상상력을 꿈꾼다.

연세에서 여성자치단체로 살아남기

여성을 위한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여성의 눈으로 보기

함께 하는 이들

연세를 여성의 시선으로 뒤집어보자!

4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97년, 연대 여성자치모임들이 제1회 여성제를 개최하였다.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이라는 모토로 진행되었던 여성제는 다양한 여성모임들의 '여성주의'가 교류하고 연대한 공간이었으며, 연세에서 여성주의를 드러내고 실험했던 공간이었다. 여성제는 여성자치모임들의 연대의 첫 산물이었다.

99년, 연대 여성자치모임들이 다시 모였다. 그리고 즐겁고 유쾌한 한판 축제를 벌리려 한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차되는 선을 찾는 자리. '나'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축수를 뿜어 서로 어루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제2회 여성제'라고 부르려 한다.

올해 1월 어느 차가운 날, 여성학 생활도서관과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탁아모임 '애포레'가 총여학생회에 의해 밤중에 강제로 철거를 당한 일이 있었다. 애포레 방을 저녁시간만 공동 세미나실로 이용하던 다른 자치모임들도 갈 곳이 없어졌다. 그러나 갈 곳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모임들의 존재자체도 없어질 위기가 다가왔다. 구상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서야 겨우 안정되었다. 방의 존재여부, 함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모임방이었기에 '방의 존재'는 모임에, 모임에 있는 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다. '공간' 혹은 '방'이 있다는 사실은 존재만의 의미만을 갖지 않았다. '공간'은 돌덩이로 사방이 막혀있는 어떤 곳이 아니었다. '공간'은 정체성이었으며, 지지대였다. 공간은 개인 혹은 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이다. 공간은 스스로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기반이다. 공간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 상상력의 힘으로 억압에서 자유로운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연세라는 공간을 다시 바라본다.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를 차지하고 있는 각각의 건물과 수많은 방들, 그리고 길들은 무심하게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공간들 모두,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정체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변할 수도, 움직일 수도 있다. 강의실, 화장실, 도서관, 대강당 앞 공터, 기숙사가는 길... 모두 시간과 장소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다르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르게 하는 '공간의 힘'의 기준

5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을 성차에서 찾는다.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달라지는, 여성성이 드러나는 혹은 남성성이 드러나는 공간들. 우리는 이제 연세라는 공간을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문대 여성모임 '모반', 여성학 생활도서관,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옴', 여성주의 모임 '13번째' 그리고 여성전문언론 '두입술'이 함께 이번 여성제를 준비하였다. 이번 여성제에서는 '공간 혹은 연세대학교라는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잡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풀어본다.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비틀고, 수정하고, 교란시키는 모습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여성제의 여러 행사들이 '공간'이라는 화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보는 즐거움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야외영화제: 여성있는 공간, 여성없는 공간

▶ 5~6일(화~수) 저녁 7시~ 9시(백주년 기념관 앞)

5일

야외영화제 I: 여성의 공간

<키친 the Kitchen>

장편영화, 컬러, 상영시간 109분

감독: 요시미츠 모리타

원작: 요시모토 바나나

키친은 우리 시대의 일본 여성의 눈으로 그려지는 가족, 사랑, 양생애, 부엌, 요리 그리고 비극에 대한 이야기이다. 상실의 슬픔과 가족의 사랑에 대해 순정만화처럼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자기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요시모토 바나나의 소설을 '실락원'으로 잘 알려진 요시미츠 모리타가 영화로 제작한 것이다. 실연을 당하고, 또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대학생 미카게는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의 자기만의 공간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러는 중 꽃배달 소년 유이치를 알게 되고 그와 그의 엄마(사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아빠)의 도움으로 자신의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나가려고 한다. 부엌이라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미카게는 조금씩 '요리'를 통해 언어를 되찾게 되는데... 그녀가 이야기하는 자기만의 공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공간을 느껴보며, 당신의 공간도 찾아보시기를!

<있다>

16mm, 컬러, 4분, 극영화

각본·편집·연출: 박찬욱

이 영화에는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한 여자가 나온다.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뒤 다른 여자를 성희롱한다. 이 영화는 그녀의 그러한

충동적이고 왜곡된 행동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피해의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피해의식은 한 개인의 특수한 성향이 아니라 성적인 억압과 지하철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웰컴 Welcome>

각본·편집·연출: 장희선

촬영: 김홍국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누구나 겪어 봤을만한 사건들이 있다. 이미 안에 있는 남자의 뒷모습에 놀라 되돌아 나오는 여자, 그것에 오히려 당당해져 여유를 느끼는 남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거리낌 없는 행동에 오히려 숨죽여 있는 채하는 여자. 떼거지로 몰려온 여자들에 위축되어 허겁지겁 나가는 남자. 그리고 여자들이 가득찬 화장실 문을 잘못(?) 연 남자.性(성)이라는 미장센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공간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여기이다!

야외영화제 II: 공간 속의 여성

6일

<퍼펙트 블루 Perfect Blue>

애니메이션, 컬러, 80분, 일본

감독: 콘 사토시(Satoshi Kon)

각본: 무라이 사다유키(Sadayuki Murai)

이 영화는 오토모 가츠히로가 연출하여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되었던 애니메이션 <메모리스>의 주요 스태프들이 모여 만들었고 가츠히로의 제자인 사토시 콘의 데뷔작이다.

스타 시스템이라는 공간 속에 있는 여주인공 '미마'는 그 안에서 예전의 팬들로부터는 청순한 아이돌 스타의 이미지를, 제작부에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성인 연기를 요구받는다. 그녀는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한다. 가상의 이미지로 존재하는 '미마'와 실제의 '미마'가 연속적으로 교차편집되며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미마'의 혼란은 극에 달한다. 스타 시스템 공간 속에 있는 신경쇠약 직전의 여성.

<제인 캠피온의 단편 영화들>



여성을 위한 인터넷 강좌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여성의 눈으로 보기

신배현경 (정보연대 SING, 진보네트워크 교육팀 전임강사)



너 그거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방방 곡곡 어디든지 찾아갈 수도 있고, 소식도 알 수 있고, 그 나름의 느낌도 느낄 수 있어. 인터넷상의 새로운 문화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정말 색다른 경험이야.

난 이제 이 공간을 자유자재로 잘 쓰고 싶어졌어. 내가 찾고 싶은 자료를 빠르게 찾아내고, 음악도 받고, 멋진 그림을 받아서 초기화면을 다양하게 장식하고 싶고, e-Mail도 만들고 사람들 이랑 친해지는 거야.

근데,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해.. 익명이라는 이유로 애들이 이상한 말을 툭!하고 쉽게 내뱉기도 하고, 폭탄메일을 보내는 등의 비정상적인 일도 일어나기도 한다던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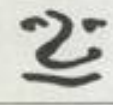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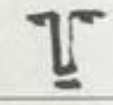
인터넷 입문 초기과정! 이런 거 없을까? 정말 역기스만 쏙! 들을 수 있는...

어머!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여성의 눈으로 보기' 여성제기간 중에 이렇게 있네? 내가 원하던 거잖아.. 애들아 가자!

우리 월드 와이드 웹을 한번 뒤집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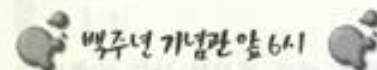
8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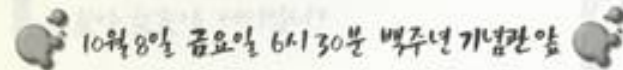
Feminian Night - 문 닫고 나가!

연세대 내의 여러 공간들을 여성의 시각으로 재조명 해보았던 이번 여성제의 주제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춤으로 노래로 고향으로 풀어내 보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이날 하루 잠시 여성들의 발칙한 반란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선우 굿패의 신명나는 굿판을 시작으로 백양로의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여성주의 막춤 결사체 아이윌(i will)의 어설픈 힙합으로 연대내의 여성을 억누르는 공기를 내치려고 합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룬 단편 영화 "웰컴" 갓 태어난 간난쟁이 여성주의 밴드 "쟁이정신"의 무대뽕 공연, 연대내 이곳 저곳에서의 에피소드를 달빛예술로 풀어보는 그림자극, 그리고 상품 파방! "몸으로 풀어보는 OX퀴즈" one miracle at a time 밴드의 재미난 공연, 등등이 난무하는 광란의 가을 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듯...

9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매일마다 민주광장에서는...

▶ 5, 6, 7, 8일 낮 12시~저녁 6시

10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개막제

함께 그림시다! 함께 놀시다!

제2회 여성제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의 포문을 여는 행사입니다. 학관 앞을 지나는 모든 연세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판이 벌어질 것입니다. 굳었던 여러분의 몸을 이곳에 와서 한 번 풀어보세요!

심리 테스트

당신은 속시?

잠지 등에 많이 나와 있는 심리테스트와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타입을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있구요. 민주광장 바닥에 설치되어 직접 걸어가면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성성/남성성의 문제들, 가부장제의 문제들과 같은 것들이 주로 질문 속에서 다루어집니다.

자신의 속에 숨어있는 여성주의의 가능성을 시험해보세요.

만물박스

한평만 다오



여성제 기간 여성주의 생활도서관에서는 '한평만 다오'라는 가판대를 운영하오. '우리에게 보습대일 땅이 있더라면'의 21세기 여성판이자 '자기만의 방'의 연세대판으로 버전업되어 거리에 나왔게 되었소. 많이를 다운로드 하시오. 이용 방법은 5(화), 6(수), 8(금) 민주광장으로 오면 아실 것이오.

여성주의 관련책(특히 여성학 관련수업과 관계있다고), 각종 만화책, 잊혀질 뻔한 식품들 기타 등등이 유료임을 깊이 명심하고 와서 다운 받아 가시오.



11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만화제

최초라

만화의 컷을 가르는 것은 바로 칸이지요. 프레임이라고도 하는 이 네 개의 선을 변형해서 만화는 무한한 공간적 시간적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 칸이 바로 공간, 시간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데 시간으로서의 칸의 의미를 변형해서 공간으로서의 칸의 의미를 강조해보았습니다. 지나가다 한번 읽어주세요. 민주광장으로 오세요!!!!

구조물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깜짝 퍼포먼스

'연애공간 뒤집기'

언제, 어디서 퍼포먼스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5, 6, 7일 중 매일 1번!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여러 공간들. 단순히 신촌동 134번
지 안, 무악산 자락에 존재하는 건물로, 방으로, 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산이다. 똑같은 시멘트와 돌덩이
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느 공간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
의 행동은 달라진다. 당연히 화장실에서, 혹은 강의실
에서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물론이다. 그러
나 더 생각해보면 같은 공간 안에서도 당신의 정체성
에 따라 달라지는 감수성과 행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뒤집어볼까? 똑같은 당신이라도 어떠한 공간인가에
따라 당신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당신이 사적인 공간에 있는지, 공적인
공간에 있는지 등등에 따라 세상은 변한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교정을 거닐며 연세대학교의 공간들을 바
라보자. 모두에게 똑같은 연세대학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女友야, 女友야 어디 있니?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있는 여러 공간들. 단순히 신촌동 134번
지 안, 무악산 자락에 존재하는 건물로, 방으로, 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산이다. 똑같은 시멘트와 돌덩이
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느 공간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
의 행동은 달라진다. 당연히 화장실에서, 혹은 강의실
에서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물론이다. 그러
나 더 생각해보면 같은 공간 안에서도 당신의 정체성
에 따라 달라지는 감수성과 행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뒤집어볼까? 똑같은 당신이라도 어떠한 공간인가에
따라 당신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당신이 사적인 공간에 있는지, 공적인
공간에 있는지 등등에 따라 세상은 변한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교정을 거닐며 연세대학교의 공간들을 바
라보자. 모두에게 똑같은 연세대학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있는 여러 공간들. 단순히 신촌동 134번
지 안, 무악산 자락에 존재하는 건물로, 방으로, 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산이다. 똑같은 시멘트와 돌덩이
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느 공간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
의 행동은 달라진다. 당연히 화장실에서, 혹은 강의실
에서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물론이다. 그러
나 더 생각해보면 같은 공간 안에서도 당신의 정체성
에 따라 달라지는 감수성과 행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뒤집어볼까? 똑같은 당신이라도 어떠한 공간인가에
따라 당신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당신이 사적인 공간에 있는지, 공적인
공간에 있는지 등등에 따라 세상은 변한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교정을 거닐며 연세대학교의 공간들을 바
라보자. 모두에게 똑같은 연세대학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숙사 가는 길

대강당 앞

화장실

나우누리 연세동 익명 게시판

사적공간 · 공적공간

-기성희씨 통합고지서 사기사건에 대한 단상

무악학사 女友들의 대화

14

女友야! 女友야! 어디 있니?

토크: "어쩔 수 없다. 그냥 걸어가지!"
 야난: "허리... 걸어서...:~:~ 그러길래, 내가 시간 다 됐다고 일어서자고 했잖아~+. 스물버스를 바로 눈앞에서 놓치다니... 휴우... 피곤한 더 일찍 올걸...난 걸어가는 거 정말 싫단말았..."
 토크: "힘들어서? 내가 업어줄까? 자 업혀, 해 줬."
 야난: "(피...)맞는다... 그냥 버스타고 갈래? 우리 그러자."
 토크: "왜...? 걸어가자... 20분이면 올라가잖아...학교의 야경도 꽤 볼만해..."
 야난: "아니, 난 무서... '담쟁이 덩굴이 뻗어 내 동을 퍼먹!' 하고 칠 것 같잖아. 올 학교 기숙사 가는 길은 흰한 대낮에는 중물로 이쁜데, 밤에는 말아...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의 도시 같아."
 토크: "음... 월하의 공동묘지 같다는 거지?"
 야난: "농담마... 글구 넌 찡찡하잖아. 이대는 환하던데. 보니까 1m간격으로 가로등이 있던 걸... 정말... 흰~하더라."
 토크: "그래... 좀 어둡긴 해... 특히 가로등이 간격은 그래... 그림자가 뒤에 있다 옆으로 오다가 앞에 생기고... 가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흠칫 놀랄때가 있어. 그래서 난 비상외 무기를 가지고 다니잖아..."
 야난: "뭔데? 뭐길래? 궁글타...@.@"
 토크: "바로 이것이지... 편!"
 야난: "에게...이게 모아? 열쇠못치? 요걸로 모하게?"
 토크: "그렇지.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것이지. 예

전에 호신술 배울 때 들은 건데, 이렇게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그때 확!하고 치르고 도망가는거야. 몇 미터는 도망갈 수 있을걸?"
 야난: "피잇... 과연, 그럴 용기가 생길까? 난 못할거... 전번에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두 암말 못하고, 심장만 쿵쿵 뛰고, 난 정말 다리가 얼어 붙어버리는 줄로만 알았다니깐. 한 걸음도 못걸렸더라. 목소리도 꼭 막혀서... 암 소리도 못하잖구..."
 토크: "그 사람? 누구?"
 야난: "몰라? 왜 내가 말 안했어? 거기있잖아. 기숙사 가는 길 다와서 말뚝 박힌데, 거길 지나가면 흰 남자가 '학생, 나랑 얘기좀 해요.'라고 딱 불러. 얼마나 소름끼쳤는데..."
 토크: "그런 일이 있었어? 난 한번도 못봤는데, 그냥 '어이, 학생'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긴 했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았어. 나 부르는 거 아니겠지...하고"
 야난: "두번이나 같은 장소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쓰여? 달랑 나 혼자 걸어가는 데... 그 사람 만난 뒤론 등골이 오싹해져서 제대로 안 걸어가. 학교버스 아님 마을버스타고 다니는게 훨 마음 놓여..."
 토크: "음... 밤 늦은 시간이었어?"
 야난: "대중없어. 지난번엔 8시쯤? 여름이라서 별로 어둡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올라간데, 근데 그 'XX'가 (*~*) 또 나타나서는... 으르르 소름끼쳐"

15

女友야! 女友야! 어디 있니?

토크: "그런일이 있었구나...그럼 뛰어가자!"
 야난: "아서라! 뛰지마... 뛰면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 걸을 때 마다 나는 구두 소리듣고선 '어이쿠,여자구나! 일씨구나 좋다.' 싶어서 말붙이면 어떻게하... 그냥 조용히, 빨리 걸어가자~~ 그게 상책이야."
 토크: "참, 근데, 요즘 그 전화 아직도 오니?"
 야난: "전화...어... 넌 이상해... 글구 싫어... =.=~"
 토크: "요즘 어떻게 해?"
 야난: "그냥 끊어버리지... 내가 아무리 '말씀하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해도 대꾸도 없구. 암반응 안 하구. 내가 화를 내두 그쪽에서 말하러야 말이지. 그래두 전화는 계속 오니깐... 느꼐 그놈이다 싶으면 끊어버리고 정말 12시 넘어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들리면 소름이 확 난다니까..."
 토크: "그래두 넌 좀 낮지 않니? 다른 애들은 이상한 숭소리도 내고... 또는 몬섹스하자는 등 별 이상한 얘기 많이 한데..."
 야난: "마찬가지야... 차라리 뛰라고 말을 하면 뛰라고 대꾸라도 해주겠는데... 암말 없으면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나는거, 그거 상상이가?"
 토크: "맞아... 무슨 대책이 없을까? 정말 여자 기숙사 번호인지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젠 정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여자기숙사 사는 사람치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경우가 어디있겠니?"
 야난: "..."
 토크: "집이라면,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겠... 할 수도 있다던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될 경우에, 근데 기숙사는 정말 무방비지 않나? 모든 여자방에다 그런 설치를 할 수도 없고..."

야난: "맞아... 학교가 이쁜데 까지 신경쓰기는 힘들겠지?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 못하는데... 지난 번에 언젠가 학교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무서우면 그냥 집에 빨리 가라...' 여자 가 뛰 늦게 다니나' 이런 얘기를 들으니깐 정말 힘이 쭉 빠지더라구..."
 토크: "정말, 어디 편한 곳이 없구나. 여? 여기가 그 사고의 현장이군..."
 야난: "아, 그냥 빨리 가자니까...두리번 거리기는...너 그 사람 만나면 상대할 자신이나 있어?"
 토크: "그럼! 내가 무뎌려 주지! 이 열쇠로..."
 야난: "소리라도 크게 잘 질러... 예전에 내가 아는 선배가 방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누가 날 따라와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토크: "그래서?"
 야난: "그래서는, 그 선배가 '아 누구야!' 하고 창문을 꼭 여니깐, 저기 @아오던 남자가 들어서 도망가더라..."
 토크: "정말... 바람잘 날이 없구만..."
 야난: "누가 아니래... 내창... 휴 ~-~"
 토크: "다왔다! 이제 안전하겠지? 아니군... 오늘도 전화가 오겠군..."
 야난: "몰라...+ "
 토크: "언제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신나게 활보할 수 있을까? 가장 익숙하게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조차 꼭 쫓겨는 듯 살아야 하다니, 어느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나만의 방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위안으로 삼고 살겠지?"
 야난: "산은... 산은 어디 안전하겠니 ~:~?"



길을 만드는 일

-이것은 대강당을 가로질러 가야할 당신이 포옥 해야할 일이다

by 예 감

16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남학생들의 전유물이 된 그 공터에서 나는 먼저 주눅이 든다. 남학생들은 이리저리 물려다니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공은 내 머리위로 휘이익 날아다닌다...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저 내가 가야할 길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자 하는 투지를 가지고 짹짹, 땀따 걸어갈 수 있을 뿐이다. 땀에 젖어 헉헉 거리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고 공을 피해서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다행스럽고 용한 일인지. 공에 대한 공포감과 주위의 시선을 미리부터 의식하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가지 일그러진 나의 모습들이 스르륵 스쳐지나간다. 길에서 마주 오는 사람과 엇갈리며 부딪쳐본 경험들도 떠오르고, 공이 나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고 뺨겨져나가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고, 소심한 나는 빨개진 얼굴로 황급히 그 자리를 모면하려 하고 그러나 여전히 나의 뒤편에는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따라붙고, 엉망이 된 얼굴과 기분을 지우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아 하루를 날려보내게 되고...하는 상상들. 대답해지자고, 얼굴 바로 들고 당당하게 바른 걸음으로 지나가자고 마음 먹지만 상황이 닥치면 어느새 웅색한 표정으로 빨리 출구를 찾고 싶어진다.

대강당 앞을 지나가는 것은 고행의 길이다. 열린 공간에서 나는 무방비 상태로 그들이 내주는 톱을 찾아 빠른 동작으로 움직여야 한다. ~ 휘리릭~ 그들보다 더 날카로운 판단력과 운동신경을 모아서 아무런 방패막도 없고 길도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길을 내고 찾아가야하는 것은 그 길을 가고자 했던 나의 몫이다. 남학생들이 공을 가지고 모여들어 농구대를 만들고 족구장을 만드는 사이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어느새 나의 보행권이 침해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난 항상 그곳에서 손님이고 이방인이고 구경꾼이고 응원해주는 관객이 되버렸다. 어느샌가, 내가 입학하기 전의 일인지, 아니면 그 전의 일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난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앉아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시멘트 바닥에 주저 앉아 담소를 나눌



수도 없다. 난 어찌 다 맘 먹고 그 길을 지나가는 행인보다 미천한 존재일 뿐이다.

공터는 이런 의미이다. 내 꺾도 니 꺾도 아닌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샌가 나는 그곳을 땀도는 행인일 뿐이

고 머물기가 못내 어색한 공간이 되버리는 곳. 나는 공간 구성부터 제외되는 주된 대상으로 간주되는 곳.

대강당의 농구대, 족구장, 그리고 벤치. 이 벤치는 나에게 더욱더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려하지만 시선이 자꾸 내 뒤편을 밟는 듯 느껴진다. 지하철에서 자신을 야릇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남성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다. "그만 옷 좀 입혀주시죠, 내려야 하거든요." 나는 사람들의 소곤거림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눈빛에 또한 민감하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기분 나쁘고 소름끼치지만, 쉽게 그 암묵을 쫓 수가 없다. 혹 나의 과민 반응이 아닐는지 확실한 물증도 없이 단지 심증만으로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대강당 공터를 가로지르는 것은 고행이다. 난 그렇다. 일반화할 생각도 없다. 그냥 난 그렇다. 대강당뿐 아니라 백양로에서 강의실에서 복도에서 학관에서 도서관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의자에서 화장실에서... 나를 긴장시키고 일탈인가 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그 무언가가 날 고행으로 이끈다. 그것은 타자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내가 스쳐가는 건물일 수도 있고, 가로등일 수도 있고,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일 수도 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이다. 내 주위의 어느 것도 나를 조이려하지 않는 것이 없고, 자꾸 가두려고 한다. 이걸 니가 보지 않아도 될 것, 이것은 니가 다니면 안되는 곳, 저건 니가 하면 안되는 일 동동동...

그 중에 대강당 가로질러 가는 일이 있다. 이걸 할려고? 형사 가제트의 다리나 우산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너 혼자서 이 길을 갈꺼란 말이지? 그 너른 공터에 키 160에 신발 사이즈가 240인 아이 하나 지나가기가 그리 험난하단 말인가. 따라갈 발자국도 없고 선도 없고 공 막아줄 막도 없다.



17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열어 쫓겨라!

-사적 공간의 공적 담론. 그 이분법의 해체를 위하여-

by 모 비

'물론 생각나는 몇군데 화장실. 초딩때 여자 어린이 화장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유치한 낙서들. 순진했던 나 그 아이들이 전부 나보다 훌쩍 커보이다. 중딩때 가끔 들른 시립도서관의 화장실. 한차원 높아져 보다 적나라해진 야한 낙서들. 적나라한 그림도 한몫거른다. 여전히 순진했던 나 왠지 가기가 꺼림칙해진다. 고딩때 시험보러 들렀던 이대의 화장실.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수준높은 낙서들. 아직도 순진했던 나. 대학이란 공간이 멋있어 보이다. 대딩이 되고 나서 들른 신촌의 많은 술집들의 화장실. 지금도 순진한나 남녀구분없는 화장실인것에 놀라다.'

다시 또 들이 밀어보는 뜬금 없는 화장실 이야기. 더이상 순진해서는 안되겠다.

'안으로 들어간다. 거울을 지낸다. 문을 두드린다.

아무도 없다.

열고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고리를 잠근다. 이제 몇분간의 원방! 자유가 주어졌다.'

말하기가 새삼스럽다 그렇게 화장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이 있어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려는 화장실은 괜시리 낯설다.

화장실의 1차적 기능은 생리적 욕구의 충족이다. 그 기능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나는 전적으로 사적일 수 있다는, 전적으로 익명일 수 있다는 데에 기댄 그들의 이야기들에 주목하려는 게다.

남자화장실에야 뭐 볼것이 있겠는가. 기껏해야 누가 누구를 따먹었네 하는 농담하는 주체만 커졌을뿐 농담의 수준은 어린시절 그대로인 저급한 이야기들이거나 회사이야기 군대이야기들이 전부 아니겠는가. 남자화장실의 낙서들은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사적인 혹은 사적이지만 않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별로 주목할 이유가 없다. 세상공간은 모두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고민거리들로, 그들의 할말들로 채워져가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화장실의 낙서가 더 보태

지는 것이 무어 그리 대수일까.

그러나 여자화장실은 다르다. 사적인 듯 보이는 그곳에서 사실은 사적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부유한다. 비단 낙서뿐만이 아니다. 여자의 행동들은 많은 부분 감추어져야 할 것이며 부끄러운것이라는 편견속에 화장실에 들어와서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녀는 오늘 세라기 티셔츠를.

빨아입었다.

'누가 볼까? 알은 화장실로 와서 들어왔다. 그녀는 절대 티셔츠만 입었다. 오죽하면 세라기 티셔츠를 입고, 티셔츠로 겹겹하게 치러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화장실을 나섰다.'

'그녀는 오늘 등신에 들어갔다가 얼마 반쯤. 여자가 무슨 공대냐고 다들 무시한다. 누구에게도 소연 하지도 않다. 각곳이나 있다. 티셔츠를 입고 들어온 곳이 화장실. 방에서 대고 무어라 욕을 고작거리지만 불이 안들린다. 씩씩거리다가 세수하면서고 나왔다.'

'그녀는 오늘 오랜만에 치마를 입었다. 스텀킹을 신었는데 왜 자꾸 내려가는지. 남자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화장실만 있으면 들어와서 배무대를 고친다. 공기도 안 통하는 이걸 신어야 하나? 괜히 짜증나지만 벌어들였다가 뒤에서 공처럼 거리는 고치들이 더 짜증나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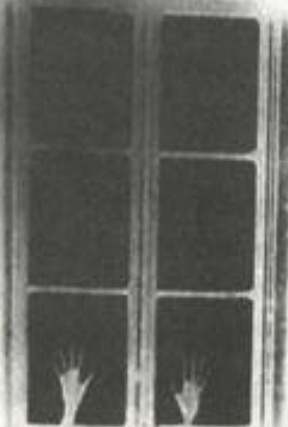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로만 보이는가.

왜 여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화장실에 들어와서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응당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괜히 트집잡지 말라고? 그게 정숙한 여자라고?

열어쫓혀보자

화장실에 들어서서야 맘껏 까발릴 수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화장실밖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까발려보자.

어차피 새삼 별스러운 것도 없는 이야기들 아니던가?



익명게시판에서, 과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by 세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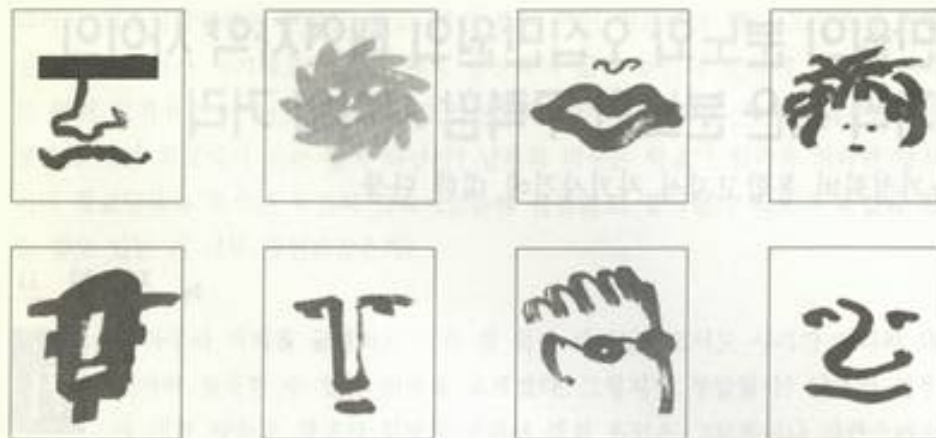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나우누리에 접속해서 'go yonsei' 한 다음, 16번을 클릭하면 우리대학교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익명게시판이 나온다. 이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반가웠었다. 사회적 비난 때문에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 혹은 다양한 정치적 토론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화장실 낙서' 같은 공간을 생각했으니까. 몇 개 단과대에 이미 설치된 화장실 낙서판처럼, 이곳 역시 또 다른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곳에 올라와 있는 글들 몇 개를 읽어보고 나서 나의 '순진한'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나는 여고생과 섹스했다', 'E대 년들은 어찌구...' 여성 비하, 그리고 소위 '정력'에 대한 남성들의 콤플렉스로 폭 찬 공간이 바로 연대 익게의 실체였던 것이다. 다소 당혹스럽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폭력'이라고까지는 느끼지 못했다. 익명게시판에서마저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은 말투를 쓴다는 건 조금 우습게 보였고, 막말로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만한 공간이 이런 곳밖에 더 있으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랬었는데...

어느날 익게에 들어가서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와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올려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아마도 진지한 답변을 기대했을 그 여학생에게 쏟아진 대답은 한마디로 '결례같은 년'이라는 비난, 그것 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몹시도 화가 났다. 그 남자들의 험악한 발언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익명게시판마저도, 결국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성의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였다. 이곳에서도 여전히 '도덕적'인 남성들이 '난잡한' 여성들을 심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여성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나는 시삽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마도 나와 비슷한 의견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을는지 얼마 안 있어 익게가 폐쇄됐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은 그것도 미봉책일 뿐이지만... 그 후 게시판에서 익게에 대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지만, 나는 아무 의견도 올리지 않았다. 익게 정화? 고운 말



만 올림시다? 이 말은 나에게 상당히 가식적으로 들렸던 것이다. 익게 문제에 대한 토론장에 들어가 보니 '연세'라는 대표성의 문제를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 또 여대에 대한 발언들이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우리대학교의 이미지 문제... 그러나 익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단지 연대생들을 욕먹게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익게가 익게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을 위한 공간이 없는 현대인에게, 이런 익명게시판과 같은 정도의 숨구멍은 필요하다는 것이 나 자신의 솔직한 의견이다. 그리고 익게에서 장난처럼 오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고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익게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반 학우들의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의 호소, 이것에 그칠 때에 한해서이다. 그것이 폭력이 된다면 더 이상 자유라는 미명으로 용서받을 수는 없다. 또한 기성 사회의 폭력, 즉 가부장적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익게는 더 이상 익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익게 투표가 얼마 전에 끝났다. 그리고 다시 개방되었다. 익게가 다시 개방되고 나서 가입자 수가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익게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다시 익게에 들어가 보았다. 한번 욕을 먹은 남자들은 대부분 '입조심' 들을 하는 분위기가 엿보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폭력적 남성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런 '내숭'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솔직히 의문이 들고 있다.

21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만원의 분노와 오십만원의 태연자약 사이의 거리 혹은 분노와 무력함 사이의 거리

-기성회비 통합고지서 사기사건에 대한 단상

by 진 철 쓰

22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0 돈 만원은 도대체 당신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우문(愚問)은 아마 천차만별로 화답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친구에게 술을 사주거나 하는 기분 좋은 쓰임새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똑같은 물건에 대해 바가지를 썼다거나, 빌려준 돈이 함흥차사가 될 때, 혹은 잃어버렸다거나, 반대한테 밥값으로 뜯겼거나 했을 때 만원은 그저 만원이라기보다 편치않은 감정을 동반하기에 충분한 액수일 수 있는 것이다.

i 기성회비가 뽕록에다가 사기라는 것이 들끓었다. 아니, 사기는 아니다. 적어도 사기는 스스로가 사기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사기치는 않기 때문이다. 이건 아예 동배짱이다. 기성회비의 등록금 통합이라는, 삼척동자도 그 심보를 꿰뚫어보는 저질 코메디를 대한민국 두 번째의 지성을 자랑하는 엘리트들에게 벌건 대낮에 여보랍시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어떤 자신감이었을까? 하긴, 공탁과 소송으로 끝나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이대를 비롯한 몇몇 학교와 비교할 때 학우들의 이 조용한 체념들을 보면 엘리트란 그들의 대외 멘트용 발언들일 뿐이고, 내부적으로는 바보로 생각하는 그들이 똑똑한지도 모르겠다.

ii 만원 때로는 몇천원에 얼굴 붉히기도 하는 이들이, 오십만원여가 넘는 액수의 사기(도난? 횡령? 그도 아니면 분실?)를 해마다 아니 매학기마다 당하면서도 천연덕스런 표정을 짓고 있을 수 있는 건 무슨 연유일까?

iii 여럿 죽이면 살인자가 아니라 영웅이라더니, 금액이 너무 많아 그걸 사기당한 걸로 인정하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애써 부인하는 것은 아닐까? 더군다나 사기라고 보기엔 너무 번듯한 걸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해마다 되풀이했었다는 관례도 있고, 파란 또는 까만 인쇄에다 빨간 도장까지 찍힌 등록금 고지서가 사기라고 보기엔 웬지 공신력이 있어 보인다. 은행에 납부하는 다른 여러 고지서들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거나 거부해본 적이 없잖은가? 무엇보다 이건 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납부의 의무는 학교가 입학할 허락한 당시 이미 학교당국과 학생간 무언의 약속이었음에 틀림없고, 불이행시 학교가 처벌의 힘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잖은가?

iv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런 것 외엔 사기당하고서도 사기가 아니라 태연자약 침묵할 수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지만 정말일까? 납부의 의무에 대한 약속과, 학교의 일방적 권력에 대한 용인은 그토록이나 자연스러운 것일까?

v 소리소문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하나의 공간이 있다.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지내기 일쑤지만 그것의 상실과 우리의 무력감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을 소통시키고 그 이분법을 의심해볼 수 있는 틈새로서의 공간! 공과 사의 엄격한 분할 사이에서 질식당하고 침묵당하며 납작해져버린 것은 이 틈새이다. 때때로 보이는 사적인 분노는 그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자기 안에서만 맴돌고, 공적으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 고분고분 납부하고 있지 않은가? 분노가 일으키는 의지와 납부의 의무 사이의 거리는 까마득하다. 그건 바로 공과 사의 거리이다. 그래서 공적인 공간의 '어쩔 수 없음'에 주눅들든 것은 오늘 또다시 친구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 속에서 꼬깃 꼬깃한 돈을 아끼고 소중히할 궁리만을 하고 있지 않은가?

vi 여성주의적인 태제의 하나로 '사적인 것이 이미 정치적인 것'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적인 공간은 언제나 공적인 공간의 뒤편함을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 보상하고 보충하고 해소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떠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은 프라이버시라는 위대한 근대적 발명품 아래 언제나 은폐되어 온 것이다. 공간! 잃어버린 그래서 되찾아야 할 공간은 바로 공사의 분할을 거부하고 비판하며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공간인 것이다.

23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하루하루를 '나'의 이야기로, '나'의 공간으로, '나'의 방으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오늘도 한숨을 쉰다. 하지만 이 한숨은 '불순한' 상상력을 꿈꾼다.

'자신의 공간'을 갖는 것, '자기만의 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여성으로서 '자기만의 방'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공간 space 이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들 수 있는 상상력이다!

1994년 3월 12일, 1994년 3월 12일, 1994년 3월 12일

자기만의 방

-공간은 상상력을 만들고, 상상력은 해방구를 만든다.

방, 전화, 단짝친구,

그리고 나인 이야기

나는 오늘도 한숨을 쉰다

하지만 이 한숨은 '불순한' 상상력을 꿈꾼다

방, 전화, 단짝친구, 그리고 나의 이야기

-독립을 위하여, 나를 만들기 위하여

26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과외하는 집과 우리 집 사이에는 서너 쌍 - 카드와 동전 - 의 공중전화 박스가 있다. 오늘은 밤 열한 시 쯤 집으로 돌아오는데 10대로 보이는 아이들이 공중전화 박스마다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 풍경이 너무나 친근하고 한편으로는 낭만적으로 느껴진 것은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 - 나도 오늘 집안에서 하기 껴끄러운 전화를 공중전화에서 하고 들어갔다 - 이기도 하고 내 친구들의 모습이기도, 고3인 내 동생의 모습이기도 때문일 것이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독서실 앞에서 폰팅한다고 전화하던 것, 고등학교 때 음성 사서함을 남기고, 친구들과 밤에 전화하던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거리여기저기서 보이는 듯 했다. 밖에 나와서 전화를 하면 통화 도중에 식구들이 "선생님한테 '개'가 뭐니?", "그 언니 남자친구 있어?", "그게 누구야?"하고 통화내용을 듣고 끼어드는 일이 없어 좋았다. 물론 식구들이 대화를 듣는 건 의도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분명 대화에 집중하기 힘들게 하는, 신경쓰이는 일이었다. 그래서 공중

전화는 식구들 앞에 일일이 공개되지 않는, 나와 친구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던 장소였다.

가족이 내 생활의 모든 것, 내가 접하는 우주 그 자체였던 시절은 학교라는 사회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귀면서, 학교에서도 내 자리를 만들면서 깨어나갔다. 이제는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어떤 것도 하기 두려운 아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놀랍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 끝도없이 펼쳐졌고, 나랑은 너무 다른 아이들을 만났고, 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리버리하고 정신은 없었지만(지금도 그 당시 기억은 많은 일들-부모님과 선생님께는 들어본 적도 없는-이 일어나는 앞에서 당황하고 있던 내 '심정'으로 남아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에도 하나하나 대응을 해야 했다. 피아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엄마와 해 보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해 보고, 또 사소한 일들은 혼자 결정을 내리고, 나보다 훨씬 잘 노는(?)애들과 새로운 것들을

by 술래

하면서 놀았다. 집에가서 식구들에게 들려줄 '나의 이야기'가 생겨나고 있었다.

내 방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종종

"나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다 컸다고 혼자 잤는데 00(내 동생)는 아직도 몽알만하다고 엄마랑 같이 자."하고 얘기했던 건 기억이 난다. (난 그때 내 동생이 엄마랑 같이 자서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학교도 들어갔는데 엄마랑 같이 자고싶다고 어리광을 부리는 동생이 한심해보였던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나에 대해서 활동적이었던 내 동생은 하루 종일 나는 모르는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애들과 나는 모르는 놀이를 하고 들어왔으니, 밤에는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할만도 했다.)

내 방에는 내 책들 말고도 부모님의 책이랑 잡지도 좀 있었다. 책상도 있었지만 책을 꺼내서 책장 앞 바닥에 펼쳐둬 앉아 읽곤 했는데, 그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고,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식구들과 얘기하고, 학교와 동네에서 선생님·친구들과 부딪히고, 숙제하는 것 말고도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드는 일이기도 했고, 그것은 단지 그 세계와 '접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합 속에서 내 생각을 키우고, 사람들이 모르는 나의 다른 면을 만들어나가는 일이었다. 그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내 방이 생

기고 부모님이 그 공간을 보장해주신다는 것은 가족이 아닌, 내가 만드는 또 다른 사회가 보장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방'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만들어진 내 얘기를 표현하고 내 논리를 만드는 곳은 바로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은 내게 있던 일을 털어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또 다른 세계에서 자라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장(場)이었다. 단, 조건, 일기는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내용에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쓰며, 그 내용은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내 일상 생활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일기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내 것'이라는 말. 전화는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이었다. 친구들과 전화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학교나 가족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었다. 비밀이라면 비밀, 아니라고 무언가 다른 우리만의 세계,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저렇게, 가족과는 다른 세계를 만들고, 또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만들면서 나는 가족이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그 누군가와와는 다른 한 사람이 되어 나갔다. '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회를 만나고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나를 다르게 바라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27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그러나 내 공간을 찾는 것은 단지 가족이나 학교로 끝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내가 만들었던 관계들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었다.

처음엔 몰랐다. 나는 단지, 어딘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없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들이 "넌 절대로 개랑 싸울 수 없을걸", "넌 언제나 개 편이기만 하잖아." 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친구가 좋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즐겁고 편하고,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비밀도 서로 알고있을 뿐인 줄 알았는데, 내게 일어난 일은 그렇게 몇가지 꼽을 수 있는 일들만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시간을 개와 함께 보내고 싶었고 실제로 그렇게 보냈고, 그애의 친구들은 나의 친구들이었고, 내 생각은 개의 생각과 다를 바 없었고, 어느 새 말투까지 닮아버렸다. 그런데 그 애는 '나랑만' '제일 친' 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젠 또 충격이었다. 무얼까. 나는 그런 것에 당황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그 애에게 갑자기 차갑게 대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내가 다른 친구들과 깊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았고, 그 친구가 나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제야 알았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장소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내 친구가 모를 수도 있는 그 사람들과 있는 공간, 그리고 나 혼자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 그것이 허용되는 관계였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 처음에는 힘들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친해지는 것은 서로의 우정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안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나의 '단짝친구의 친구'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었고, 또 내가 내 친구와 각각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관계였다. 나는 분명 그런 관계가 나나 내 친구에게나 더 폭넓은 사회를 만나게 하고, 서로가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됨을 알았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던지간에 내가 나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서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의 이야기, 그것을 풀어낼 언어를 만들고 있다. 또, 나는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일일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나를 구성하는 다른 세계, 다른 공간, 다른 사회를 만나고 만들 자유를 원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와 내 독립의 가능성을 내게 열어줄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한숨을 쉰다. 하지만 이 한숨은 '불순한' 상상력을 꿈꾼다.

- 연세에서 여성자치단체로 살아남기

by 강김정임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어김없이 수업이 끝나면 난 구상대 뒤쪽 허름한 가건물의 동쪽방으로 향한다. 구상대 자판기에서 150원짜리 커피 하나를 뽑아들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 냄새가 가득한 구상대 가건물 1층 복도를 지나 파란 대문 동쪽방 앞에 서서 콧물 자물쇠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면 언제나 지저분한 동쪽방이 내 눈앞에 있다. 컴퓨터 옆쪽에 언제나라도 떨어질 듯 위태위태하게 놓여있는 화이트 보드,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 모를 짐들이 가득 쌓인 김정색 쇼파 하나, 긴 탁자 옆에 뻗뻗하게 들어차 있는 의자들, 그 의자들과 벽 사이를 힘겹게 돌고 지나가면 또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책이며 옷가지들, 군데군데 모서리가 다 떨어져 나간 책장 3개, 이것들이 좁은 동쪽방을 더 좁게 만드는 물건들이다.

앗! 어느새 오후 6시다. 큰일났다. 빨리 화장실에 가야 한다. 늦으면 안 된다. 짹짹 동쪽방 문을 박차고 좁은 복도를 쿵쾅거리고 뛰어가 보지만 이미 늦었다. 구상대로 들어가는 유리문

은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는다. 할 수 없다. 가건물 뒤쪽의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 감지 않은 길을 지나 학생회관 화장실까지 가는 수밖에.. 더군다나 이미 어두워져서 가로등 하나 없는 가건물 뒤쪽 길은 조심해서 가지 않으면 다친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밤에 그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발이 빠져서 무릎팍이 깨진 걸 생각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예잇, 그냥 참는 편이 낫겠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참을란다. 회의가 끝나고 신촌으로 내려가는 길에 학생회관 화장실에 들러야겠다. 오후 6시만 되면 어김없이 구상대로 향하는 문을 잠그는 수위아저씨가 너무 밍다. 가건물에서 생활하는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젠 명백한 학생자치활동 탄압이구나!

요즘 들어 동쪽방에 들어가면 담배 하나를 꺼내물고 한숨을 쉬는 버릇이 생겼다. 이 방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법대가 구상대로 이전하면서

여기 가건물에는 속속들이 법대 동아리들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상대 동아리들도 이 공간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벌써 옆의 방을 쓰던 동아리들은 다 이사가고 평한 빈 공간에 다 치우지 못한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 현재의 동쪽방에는 다른 동아리가 들어온다고 한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도 빨리 이사를 가야 할텐데... 내 한숨의 근원지는 바로 여기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하나. 이사 갈 공간이 단 한군데도 없다. 정말 백양로 한 구석에 천막이라도 치고 살아야 하나? 휴우~

문대 여성모임 '모반'이 동쪽방에 얹혀 산지도 1월말부터니까 벌써 8개월이 넘었다. 97년 말 '모반'이 생기고 난 후 공간 없이 그러저럭 활동하다가 98년 2학기부터 학생회관 3층 총여학

생회실을 회의 장소로 쓰게 되었다. 1주일에 한번씩 총여실에서 정기모임을 가지고 공간 시간에도 가끔씩 총여실에 들러서 다른 여성 자치단체 사람들도 만나고 총여 사람들과도 만나서 놀기도 했다. 총여실은

넓적하고 3개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았다. 총여 집행부가 아닌 다른 여성자치단체들이 같이 공간을 사용하기도 편리했고, 뭐 놀기에도 좋았다.

그러던 중 11월 선거가 있었고 새로 당선된 11대 총여학생회가 총여실의 새 주인이 되었다. 총여실의 주인이 바뀌고 난 뒤 얼마동안은 총여실을 그러저럭 이용할 수 있었다. 모반의 정기모임도 총여실에서 했고 여성자치단체의 사람들도 총여실에서 가끔씩은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월 19일 9시, 여-때처럼 모반과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옴', 여성학 생활도서관, 여성전문언론 '두입술' 등의 여성자치단체들은 회의를 마치고 총여실을 나왔다. 그 다음날인 1월 20일 요란하게 울리는 나의 핸드폰으로 들려오는 다급한 후배의 목소리, "언니, 큰일났어. 두입술이랑 여성학 생활도서관이 총여실에서 강제 철거 당했대." 연락을 받고 급히 총여실로 올라가보니 총여실 앞에는 생활도서관 책장과 책, 그리고 나머지 두입술과 다른 자치단체들의 책이며 캐비닛, 탁자들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었고 사람들은 망연자실해서 서 있었다. 굳게 닫혀진 총여실은 그 후로도 한동안 열리지 않았고 총여실로 가는 전화도 아무도 받지 않았다. 11대 총여학생회 집행부는 강제철거 사건이 있는 후 7일째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총여실을 자치단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여성자치단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도 11대 총여가 만들어주겠다던 세미나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고, 공간이 없는 모반을 비롯한 여성자치단체들은 그후로 법대 성연구 모임 '동그래지는 온족이'의 새로 생긴 구상대 가건물의 그 좁은 방에 복작대면서 현재까지 얹혀 살고 있다.

그 와중에 올해 2월 문과대의 공간 협의회에서 모반은 공간을 배정 받기로 약속 받았지만 문과대 내부의 공간에 관련된 공사가 문과대 사무실에서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모반도 아직까지 구상대 가건물 동쪽방에서 얹혀 사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요즘 나의 한숨과 관련된 길지만 짧은 이야기이다.

얼마 전에 얼핏 친구에게서 프랑스 68혁명 때 이런 구호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바리케이트는 거리를 막지만 길을 열어준다'. 68혁명의 선봉장이었던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투쟁의 거점으로서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거리에 바리케이트를 쌓았다. 그 바리케이트는 차와 시민이 다녀야 할 거리를 막아 불편함을 주었지만 온갖 억압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간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학교 당국과 국가에 의한 학생자치권에 대한 억압,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육권에 대한 억압, 가부장제에 의한 여성에 대한 억압,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억압에 대항하는 저항의 불길은 늘 차가 다니는 공간으로만 인식되었던 거리를 바리케이트를 쌓아 해방의 공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나는 백양로에 바리케이트를 쌓을 생각은 없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68혁명 당시의 절박함에 이르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연세에서 자치단체로 살아남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1년이 다되어 가도록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학생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연세, 그나마 학생회가 아닌 자치단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절서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연세에서 가부장 사회의 전복을 꾀하고자 연세를 여성의 해방구로 만들어보려는 여성자치단체들의 생존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현재 여성자치단체들이 빌려쓰고 있는 구상대 가건물 동쪽방이라는 공간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동쪽방에 들어서자마자 담배 한 개비를 꺼내들고 한숨을 쉰다. 하지만 그 한숨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담배연기는 바리케이트로 해방구를 형성하는 68혁명 때 혁명가들의 상상력을 꿈꾼다. 연세에서 여성자치단체들의 '불순한' 상상력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은 다시 더 '불순한' 상상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여성의 눈으로 보기

신배현경 (정보연대 SING, 진보네트워크 교육팀 전임강사)

1. 난 이런걸 하고 싶어

난 말야, 이런걸 하고 싶어. 여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느낌을 나누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함께 이상한 얘기들랑 싸울 수 있게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어. 물론 나도 아는 게 조금밖에 없지만,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던걸.(뭘 할 수 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 해 줄게~호호) 테크놀로지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구. 하지만, 무서운 것이기도 한 것 같아.

테크놀로지는 과연 가치 중립적일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생각하니? 난 스타크래프트가 재미없어, 싸우고 죽이고, 그런 걸로 즐길 수 있다는 것, 끔찍하지 않니? 하지만, 많은 게임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게임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 컴퓨터란 결국 여성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다른 문화인 것뿐이 아닐까? 포르노처럼 말이야. 기존 사회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배척 당하고, 결국 소비, 생산, 유통의 과정에서 밀려나 버리는 거야. 남자들은 자기들이 놀고, 일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테크놀로지들을 개발하지.

세상에는 우리를 위한 공간이 너무나 없잖아? 사이버 세상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꺼야? 난 싫어. 남성들에게 우리에게도 권리를 좀 달라고 조르고 투쟁해 봐야 결국 얻을 건 없다고 생각해. 난 끈질기게 새로운 여성들만의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이버 공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싸워야 할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면,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32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그럼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볼까?

웹사이트에 있는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서비스,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 등을 사용하면 무척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특히 인터넷의 대명사가 된 웹(월드 와이드 웹)은 통신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문화적 내용물을 훨씬 보기 좋게, 보기 쉽게 드러내 줘. 왜 그림도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 그만큼, 선전 효과가 뛰어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 내가 여성운동에 대한 정보를 웹에 올려 놓으면, 여성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찾아와서 친구가 될 수도 있어.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 여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힘이 생기겠지? 그런 힘으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은 경우도 많이 있어. 인터넷은 거의 통제나 검열이 불가능하니까 사회에서 통제되고 검열 당하는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

2. 문화는 엄청난 익숙함들로 이루어진다.

문화는 엄청난 익숙함들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웹사이트를 몇 번 돌아 다녔다고 해서 네티즌이 되는 건 아닐꺼야. 우선, 전자우편주소를 만들고, 옷 구경하러 여기저기 길거리를 돌아다니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골라서 정보를 찾아 돌아 다녀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면 좋은 정보가 있는지 알게 되면 조금은 네티즌에 가까워지겠지.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법을 배워야 할거야. 하루만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테니, 오늘은 전자우편 주소를 공짜로 주는 사이트들에 가서 전자우편 주소를 만들고 메일링 리스트도 이용해보기. 길을 안내해주는 사이트, 가볼 만한 사이트, 한번보고 썸이 들만한 사이트 등을 소개해줄게. 실제로 써보고 익숙해지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겠지?

자,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을 한번 뒤집어 볼까?!

33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 검색 사이트

www.yahoo.co.kr(com)
www.altavista.co.kr(com)
www.naver.com
www.kinds.or.kr/(신문검색)
isurf.interpix.com/(이미지 검색)
www.etnews.co.kr/(etnews/search) (전자 신문, 기업정보 검색엔진)
www.jinbo.net

● 여성 사이트

www.jinbo.net/~dalara/(달나라 딸세포)
ews.ewha.ac.kr/(이화 여성학) - 링크 사이트 보기
www.kwnet.org(여노자협)
www.menses.org
www.guerrillagirls.com/

● 여성건강을 위한 사이트

obgy.doctor.co.kr/
www.piim.or.kr/

● 동영상

www.shockwave.com

● 동성애자 사이트

niagga.jinbo.net/
www.buddy79.com/
www.doah.co.kr/aquibird http://ddanji.netsgo.com/ ...



함께한 이들

여성단체

○ 전체기획단
강경림(목지) : 문과대 여성모임 '모양'
장일숙(장대) : 여성모임 '여성생활'
백희정(지대) : Delta Feminist
곽주희(여) : 여성주의를 "두입술" 편집위원

개막제 '대형 그림 함께 그리기'

○ 기획단
최성환(한대) : 이과대 여성학회(장)
강경림(목지) : 문과대 여성모임 '모양'

이외 영구제

○ 기획단
강주희(여) : 사회대 여성모임 beyond
복궁주(복) : Delta Feminist
김성주(여) :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몸'

여성을 위한 인터넷 강좌

○ 여성학 생활도서관
최성환(한대), 김성주(여), 서명주(목), 이이진(여)
서명주(목), 이이진(여)

만화축제

○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몸'
황희정(여) :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몸'
강경림(목지) : 문과대 여성모임 '모양'
○ 재미정신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몸'
이이진(여), 김성주(여), 이이진(여), 김성주(여), 황희정(여)

○ 여성 합동팀 1차

이이진(여), 서명주(목)
윤이진(여), 윤지영, 김연, 황희정(여)

만화박스 '한평만 다오' -

○ 여성학 생활도서관
이이진(여), 김성주(여), 서명주(목), 최성환(한대), 김성주(여), 서명주(목)

'女友야 女友야, 어디있니?'

○ 여성모임 '열세번째'
서명주(목), 정이진(여), 이이진(여)
최성환(한대), 장일숙(장대)

심리테스트 - '당신도 혹시?'

○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장일숙(장대), 강경림(목지), 차주희(여), 김성주(여)

만화 거리전

○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차주희(여) :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잠깐 퍼포먼스 '연세 공간 뒤집기'

○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장일숙(장대) :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Special thanks to:

delta feminists, 열세, 두루



MEMO

중립 코미디 잡지.



포천중문 의과대학



〈차병원 전경〉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이사장 차 경 섭
성 광 의 료 재 단

- 강 남 차 병 원 ☎ (02) 3468-3000
- 분 당 차 병 원 ☎ (0342)780-5000
- 강 남 차 한 방 병 원 ☎ (02) 3468-3000
- 분 당 차 한 방 병 원 ☎ (0342)780-5000
- 여 성 의 학 연 구 소 ☎ (02) 3468-3000
- 기 초 의 학 연 구 소 ☎ (02) 3468-3000
- 검 진 센 터 스포렉스 ☎ (02) 3473-2111
- 건 진 센 터 세 원 ☎ (02) 546-2511

 포천중문 의과대학교 · 차병원